침통한 정몽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수뇌부들이 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 모여 출구조사 등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책사업 싸고 대충돌 예고

■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어떻게 될까**

한나라, 책임론 확산땐 정몽준 대표 정치적 타격

민주당, 친노 세력 약진… 향후 정국 주도권 쥘 듯

6·2지방선거 결과가 거대 여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다.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여권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대형국책사업이다. 강경 일변도의 남북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권과 대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부 역학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등 여권**=일단 지방선거 결과에서 민심의 견제를 확인한 만큼, 신중모드로 변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하한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민감한 이슈가 담긴 정책이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일단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월 28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여권의 낮은 포복을 유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수정 문제 등은 상당 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동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책임론 등이 확산될 경우, 여권은 상당한 분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몽준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지역구에만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표도 일정 부분 영향력 축소가 예상된다.

당내 주류인 친이계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기반으로 향후 정국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잡아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당권 재도전은 물론 대선 예비주자로서의 길도 넓어질 전망이며 민주당 주류 세력의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손학규 전 대표도 정계복귀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이다.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던 정동영 의원도 당내 기반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당내 비주류 세력이 활로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지도체제가 순수집단지도체제로 변화된다면 천정배, 추미애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지도부 진입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노 세력이 크게 약진함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친노 인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행정의 달인' 당선… 변화 불가피

■ **광주시정 어떻게 되나**

자동차·가전·광·문화·그린에너지 주력산업 특화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광주시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강 당선자가 민선 3·4기 8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내무부장관·관선 시장·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축적된 자신의 색깔로 광주시정 쇄신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조직 및 일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 살맛나는 사회,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로 요약되는 강 당선자의 슬로건은 민선 5기 주요 시정이 나아갈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슬로건 아래 5대 핵심과제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건강하고 행복한 생태공동체를 선정한 바 있다.

핵심과제에서 가장 중시되는 단어가 '공동체'이며,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강 당선자가 특유의 리더십과 잠재력으로 어떻게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당선자는 먼저 2014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실업난을 해소하고,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하위권인 광주시의 경제규모를 2014년까지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제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자동차·가전·광·문화·그린에너지 산업을 5대 주력 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키고 첨단 융·복합산업, 전지산업, 헬스케어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 R&D 특구를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진 개방형 국제협력단지로 개발하고, LED(발광다이오드)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광주비엔날레를 만들어 낸 강 당선자는 지역 내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 옛 전남도청 주변·사직공원·송암공단 일대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문화관련 기업 500개 이상을 집중유치·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2014년까지 미뤄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시기를 2013년까지 앞당기고, 광주비엔날레·김치축제 등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키워내는 것을 재임기간 목표로 설정했다. 인재양성 기금 조성·초중등 영재교육 강화·광주여성재단 창설·광주여성통합지원센터 개설 등 인재 양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강 당선자는 또 팽창과 성장 위주의 과거 도시개발과는 달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강화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환경분야와 관련해 범죄와 자동차 사고를 오는 2014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영산강·극락강·황룡강 주변을 친수·레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도 갖고 있다.

이밖에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생태공동체 건설 ▲사회적 취학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완벽한 준비와 생활체육 활성화 ▲세계 속의 인권, 평화공동체의 메카로 조성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개방형 국제도시 건설 ▲시민참여와 소통의 시정 실현 등도 민선 5기 주요정책이다.

강 당선자는 2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서 광주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반듯한 도시, 창조의 중심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3선 성공… F1·여수 엑스포 '탄력'

■ **전남도정 어떻게 되나**

영산강 살리기·인구 늘리기 등 최우선 추진

박준영 민주당 후보가 전남지사 3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역점시책들이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사업과 포뮬러원(F1)대회, 여수엑스포,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지역의 굵직한 대형사업들도 3선 성공으로 다시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은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지역민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회의가 일기도 했지만 박 당선자가 3선 성공으로 재신임을 받은 만큼 당분간 이같은 시각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었던 영산강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될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시종일관 정부의 4대강 사업과는 상관없이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일부의 반대 여론 때문에 사업추진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5기 도정의 기본방향은 박 당선자가 공약에서 이미 밝힌대로 인구늘리기와 농촌 살리기, 관광객 유치 등 3가지를 목표로 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4년동안 기업 2000개를 유치해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향후 도정 역점시책의 최우선 순위에 오를 것이다. 일자리 유치는 결국 전남의 숙원사업인 인구 200만 시대 회복 등 또 다른 도정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고,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지원·복지사업 등 박 당선자의 관심사업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의 농업분야 핵심 사업인 친환경 농업도 민선 5기에 결실을 보아야 하는 분야다. 그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총 경지면적을 45%까지 확대하고 관련 수출기업 50개 육성과 유기농 생태마을 50곳 육성, 고수익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약속했다. 무너져 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을 꼽고 있는 셈이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에 대한 박 당선자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이 지닌 농업과 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생물의약연구센터와 식품산업지원센터 등 7개 연구기관을 활용해 기능성 식품과 신약 등 미래산업의 기반도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도정의 목표가 녹색을 바탕으로 미래전남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활용해 더 많은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앞으로 4년간 전남이 갖고 있는 농수축산업, 항만물류, 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